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

The Meaning for Marriage Migrant Women to have College Experience

백은숙*, 한상길**

단국대학교 교육학과*,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교육과**

Eun-Sook Baek(beunsook@hanmail.net)*, Sang-Kil Han(potentia2024@naver.com)**

요약

이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즉,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 동기와 진학 후 학교생활을 통한 학습경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경험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의미는 구조적으로 어떠한지를 탐색한 것이다. 연구 참여자는 거주기간이 10~18년 차인 도농지역 결혼이주여성 6명을 연구의 질적 보증이 가능하도록 Miles & Huberman (1994)이 제시한 「의도적 표본 추출 전략」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추가면담 및 관찰과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 동기는 자신의 꿈 실현, 당당한 부모상 찾기, 안정된 가정경제 추구, 전문 직업 갖기, 진로결정의 수단으로 탐색되었다. 둘째 이들의 진학 후 학습경험의 의미는 의사소통 능력증진, 가족관계에서의 자아상 확립,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가족건강생활 증진, 인간관계증진, 배움을 통한 평생학습 인간이 됨으로 탐색되었다. 셋째, 미래의 삶과 관계 짓는 의미 구조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주체적 삶, 배움의 가치추구를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당당함과 인간답게 사는 삶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결혼이주여성 | 학습경험 | 평생학습 |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a phenomenological method to explore what the meaning for marriage migrant women to have college experience is. In other words, It is to find out what the motivation for them to enroll the college is and what the experience of studying in college implies. Also, figuring out how the expectation for life after the college experience is built up structurally i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o ensure the qualitative warranty of the research, the participants are selected by 『Sampling and Data Collection Strategy』 suggested by Miles & Huberman (1994); and those selected participants are six marriage migrant women in urban-rural area with 10~18 years of residence period. The information for this research had been collected by in-depth and additional interviews along with observation towards these six participants. The result is the following. First, the motivation for them to enroll the college is; to realize of one's dream, to have confident parental model, to pursuit stabilized domestic economy, to have a professional occupation, and to make it as a mean of searching one's career path. Second, the experience of studying in college implies; enhancing communication ability, establishing self-image in the family and its relationship, having confident in raising children, enhancing healthy living of family, enhancing human relations, and lifelong learning person through set of learning. Third, the structure of how it build the future life is; having independent life pursuing stable living economically, living as a confident Korean by pursuing the value of learning and having a life of human being.

■ keyword : | Marriage Migrant Women | Learning Experience | Lifelong Learning |

I. 서론

최근의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생활 경험이 축적되어 가면서 개개인의 자립능력 수준에 따라 구직과 직업 활동을 위한 정규대학 및 지역의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이 급속히 증가하던 2000년 전후 결혼이주여성은 소통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가정생활적응 교육 그리고 한국의 전통사회 적응 등을 위한 단기성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주로 참여하였다[1][2]. 그러나 한국생활 기간이 늘어나고 출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 양육과 교육 및 가정의 빈곤 극복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단기과정 교육프로그램인 자기역량개발 교육활동에 결혼이주여성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3][4].

이에 관련한 최근 연구들은 저학력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과 인적개발에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교육 수요 증가 가능성과 단기과정의 비학위과정 평생교육프로그램 자격증과정에서 학위취득 정규교육과정으로의 관심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진로탐색과정에 대한 연구와 학습경험 및 성과에 대한 심층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3].

초기의 연구들은 대부분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대상 사회생활 및 전통가정 적응에 대한 연구로서 [5] 언어와 의사소통[6][7], 가족과 남편의 배려와 지원, 부부 및 자녀와의 가족관계[8][9], 결혼이주여성 일자리 창출과 직업적 지위향상을 위한 취업준비 교육관련 [4][10]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그들의 문화 차이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비인격적인 대우, 가족 간 및 고부간의 적응과 갈등[11], 가족 간의 차별적 행위[12], 사회문화적 갈등[13], 가정의 경제적 빈곤 문제로 인한 갈등 연구들[8][14]이 다수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주로 문화적 소수자인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경제적·문화적 문제 및 가정 내에서의 차별적, 부부, 자녀, 가족의 문제와 가정의 경제적 빈곤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 문제는 곧 가족 구성원의 상호 신뢰성 약화로 확대되어 부부갈등과 가족해체 증가 원인이 되고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이의 해결 대안은 곧 배움이며, 그들이 한국 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이질적

문화에의 적응을 위한 전통문화 습득과 소통능력 향상 및 가족 내에서의 정체성 확립, 재취업과 가정의 경제적 빈곤 해결을 우선시 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생활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학위와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입학 과 학습경험이 중요함을 제안해 볼 수 있다.

특히 대도시보다 농어촌 소외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다양한 교육욕구 충족 수단으로,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한 고등직업훈련 기관이 전문대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의 전문대학은 직업훈련기관으로서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평생학습이념의 실천의 장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입학 동기는 일상적 삶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한국생활의 꿈을 펼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학위와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 충족에 있다[3][15]. 이를 확인하고 그들의 전문대학 입학과 학교생활 지원을 돕기 위한 그들의 요구 탐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지역사회 고등직업훈련기관인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전문대학 진학배경과 동기 및 학교생활 경험의 의미 그리고 학교생활 경험 후의 삶에 대한 기대 등을 탐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과정이야기는 어떠한가?

둘째, 전문대학 진학 후 학습경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그들의 학습경험 의미와 삶의 기대관련 의미 구조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고찰

1.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요구

결혼이주여성의 배움 활동 참여는 낮설고 두려운 환경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한국에서의 삶을 건강하게 유

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16], 새로운 생활환경 적응은 물론 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데 유용한 대안이다[3].

결혼이주여성에게 교육은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교육 경험을 포괄하는 개념이 된다. 새로운 음식,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얻어지는 학습경험이 교육경험으로 체계화되고 자신의 이전경험과 학습을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며[2], 그들의 문해교육 경험은 단순히 글자를 해독하고 쓸 줄 아는 능력습득을 넘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계기 마련과 사회일원으로서의 역할 등 생활전반의 바람직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2].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제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문제해결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국사회의 정착과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17].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자신의 생활 만족도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자녀양육과 교육비용 해결에 큰 도움을 주며[18], 이로 인한 사회구성원과의 접촉 증가는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19][20].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자본 확충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저학력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취업관련 교육자격증 과정과 학력자본의 확대가 필요하며[21][22], 그들의 능력신장을 통한 인적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다양한 교육자원 시설과 학습참여자에 대한 예산과 지원이 요구된다[22].

최근 한국거주 결혼이주 여성들의 거주기간과 생활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단순한 취업을 넘어 직업 지위향상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업연계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며 보다 나은 일자리 진출을 통해 장학금 지급, 학업을 지원하는 등 정착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22].

취업관련 교육 문제도 단순한 접근이 아닌 취업이후의 교육요구와 수요를 대비하여, 직업 상담을 통한 직업훈련 지도, 개개인의 한국어 수준 및 학력 등과 교육

기관 및 교육내용을 고려한 단계적인 지원과 심화과정이 요구된다[4][23].

이에 그들의 자녀 또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전문대학의 제도에 관해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이중 언어 교육, 전문대학을 이민자 한국사회 적응교육 기관으로 지정, 다문화가정 출신에게 장학혜택부여, 전문대학을 이민자 대상 평생교육차원의 직업교육기관으로 지정, 입학특전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교육기회 특히 전문 직업훈련기관인 전문대학이 그들의 교육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입학정책 수립과 정책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대학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구성체 결성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차원의 예산 지원과 고등교육정책에 있어서의 국내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배려정책이 출선되어야 한다.

2.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

한국에 입국한 결혼이주여성은 다음과 같은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는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KIPP 과정이다. 이 교육은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한국어 교육(415시간)과 문화이해 교육(50시간), 해피스타트 프로그램(3시간)등이 있으며 이 교육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다. 둘째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생애주기별 교육이다.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서비스는 입국 전 단계부터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라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입국초기가족관계형성단계, 임신·출산·전후기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 양육서비스 지원 단계, 역량강화기, 취업역량강화, 영농기술교육, 취업교육, 정보화 교육단계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 교육은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 개인·가족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등을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셋째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고등교육기관 등이 있으며 거주 년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취학이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은 160만 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음에도 다문화교육 정책은 관주도형 다문화주의와 자민족중심주의가 공존하고 있으며, 소수의 이민자에게만 다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24]. 다문화교육은 상호 다름에 대한 이해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인종, 성, 계층, 종교 등 다양한 사회집단의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교의 전환을 통하여 동일 사회 내에 혼재하고 있는 구성원간의 불평등을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다 [10].

그러나 한국의 다문화교육 특히 결혼 이주민이나 취업이주 근로자 대상의 다문화교육은 한국생활 적응 및 언어소통 관련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이 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성을 위한 교육 서비스는 지자체 중심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과 전통문화이해교육, 취업지원교육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작금에 와서는 취업요구 증가에 따른 취업중심 실무 훈련 및 교육을 위한 다문화교육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성을 위한 취업지원교육은 지역별 지자체가 지원하고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국내의 NGO산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상담활동, 한국어교육, 전통문화교육, 가족관계 교육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 향상과 관련된 취업준비 교육 및 자신의 사회참여 활동과 관련된 교육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및 취업활동 지원 유형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 정책수립, 직업교육 훈련지원, 고용과 취업을 위한 기업체와 결혼이민자의 협약체결, 예산확보와 지원 등으로 주로 인적자원개발 차원으로 지자체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고용과 취업 지원 활동은 새로 일하기 센터와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그리고 직업훈련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15].

그들에게 전문성을 요하는 직종은 또한 일정한 학력수준과 경쟁력이 요구된다. 별도의 노력 없이는 직업이

아닌 부업 또는 자원봉사 수준의 사회활동으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착기간 증가와 학습요구의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인 취업관련 직업훈련교육보다는 장기적인 고등직업교육훈련도 실시되어야 한다[10].

캐나다로 이주한 중산층의 고등교육을 받은 이민자들 연구에서 고등 교육을 받은 이주민들이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이민자들보다 이웃과 조직적인 연계를 더 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Wilson, 1998). 따라서 교육을 통해 이들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의 기회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25]. 이를 위하여 사회통합 정책이 필요하고, 사회 자본으로서의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이들 대상의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Putman, 2004).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국가는 성인교육 및 직업훈련 체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민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가정 자녀의 직업교육 시행, 재학생에 대한 다문화 교육지원 등 다문화사회정착을 위한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통합과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26]. 즉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취업교육 훈련 지원은 단기적인 직업훈련은 물론 장기적인 고등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맞춤형 혹은 전문대학 입학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3. 전문대학에서의 결혼이주여성 학습참여 경험

전문대학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실무중심의 직업교육을 수행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일반대학이 연구중심이라면 전문대학은 기능인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전문대학은 짧은 수학기간에 실무중심의 강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27]. 2014년 기준 139개 전문대학은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중, 소, 대도시 등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다. 또 전문대학은 2년제, 3년제 학과 등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학제

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26]. 특히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음을 고려한다면 전문대학은 공간적으로 결혼이주여성 가까이 위치해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소득 수준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임을 고려할 때 접근성에 대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저 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학령기 청소년의 입학이 감소한 대신 제 2의 취업교육을 위해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만학도가 증가하고 있다[26].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전문대학은 접근의 용이성을 강점으로 활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사회 실현 제고의 가치가 있다.

전문대학은 고등교육훈련기관이다. 직업준비를 위한 교육실천 장소이며, 직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내용을 연마하는 직업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지역사회 주민과 그들의 자녀인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기관으로 각 지역 환경 및 지역의 특성에 그리고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수의 전문대학들이 지역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결혼이주여성들도 대도시보다는 주로 농촌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구성원으로 한국에서의 다문화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다양한 학습동기 유발과 학업성취 요구가 강해지면서 어려운 환경임에도 주변의 전문대학을 찾아 입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28].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초기적응을 위한 학습활동 참여, 다음은 한국사회생활에 익숙해진 단계에서는 당당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은 경제적 빈곤해소와 자녀교육을 위해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을 하고, 학업성취를 통한 다양한 경험과 보다 나은 한국적 삶 살이를 위하여 고등교육훈련기관인 전문대학에의 입학과 학습을 경험해 나간다.

따라서 전문대학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특성을 지닌 결혼이주여성을 위하여 그들만을 위한 특별입학 정책수립, 교육과정 개편과 운영, 직업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예산의 확보와 지원 등 혁신적인 다문화가정의 성

인여성을 위한 직업교육 및 훈련활동이 가능한 배움터로 거듭 변신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사회 고등교육인구 부족으로 인한 대학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응도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4. 결혼이주여성의 학습참여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은 입국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국제결혼과 이민이라는 생애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성인여성이며, 다양한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의 이질적 특성을 지닌 한국시민으로서 무한한 잠재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특히 이들은 한국이라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면서 언어와 문화차이, 자녀 교육문제 및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있는 사회주변인이기도 하다. 이들에게 다양한 생애사건의 경험은 학습참여에 강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29], 이들의 학습의지에 따라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물론 인간의 내적, 외적인 성장을 촉진시킨다[3]. 학습에 관련한 연구들은 학습경험은 일상생활에서의 학습을 생활화하고, 자기성장과 발전을 유도하고, 삶에 활력을 주며[30], 자아존중감 향상[31]과 자기효능감 제고[32]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평생교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다양한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한국사회에 보다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33].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종교, 신체, 음식, 언어, 제도 등 문화충격이 클수록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습 참여 동기는 기술을 익혀서 취업과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지가 강한 것에서 볼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이러한 취업에 관련한 욕구는 성장 발전에 대한 요구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이며 강한 학습동기를 제공한다[29]. 이는 학습의욕을 일으키는 내적인 힘으로서 학업성취를 높게 나타나게 하며,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취하게 한다는 것이다[28].

결혼이주여성 학습참여 경향에 대한 기존선행연구들은 한국사회 초기적응에서는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문화이해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에 높은 참여율을 보이

며 이에 익숙해지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한 직업기초능력 향상 및 직업교육훈련 등의 영역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직업영역에 대한 교육제공 및 학습참여는 미흡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단기훈련 또는 일회성 행사위주의 학습특성을 많이 띠고 있는 실정임을 지적하고 있다[2]. 기존연구 또한 주로 단기성 교육프로그램참여에 관한 연구로서 최근 교육육구와 진학자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정규고등교육기관의 진학과정과 학습의 미 탐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결혼이주여성 18명중 4명이 학위취득을 위해 정규교육과정에 진학하고 있으며 최근 입국한 결혼이주여성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저학력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형식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은 학력신장 뿐 아니라 개인의 역량강화측면의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가능성 제고 등에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 또한 지역대학차원에서 이들의 형식교육기관 진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3].

이들은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수준 높은 한국어 능력, 전문 자격증 취득, 사회활동 참여 및 취업활동, 자녀에게 당당한 부모 되기, 경제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학습참여 동기가 점진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3].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애’와 연계된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소수 외국인 여성이 아니라 당당한 자녀의 어머니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배움과 학습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학습 동기 혹은 학습 요구 충족 수단으로 찾는 곳이 전문대학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이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 탐색이 그 목적이다. 여러 질적 연구방법 중 연구주체에 따른 ‘경험’의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들을 기술하여 그대로 반영하고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여 구조화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그리고 같은 철학적 맥락의 Moustakas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의 연구수행 과정은 지방의 전문대학 재학 및 수료자 6명을 대상으로 면담과 관찰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Giorgi와 Moustakas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선형적 구조가 아닌 순환적구조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설계 과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그림 III-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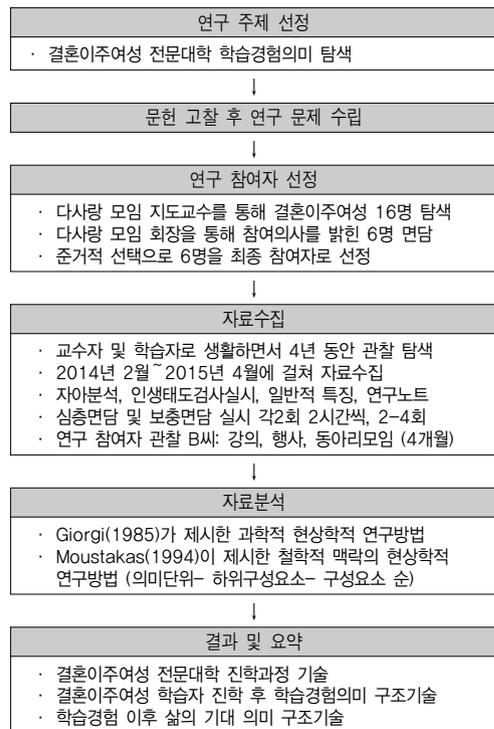


그림 III-1. 연구설계과정

2. 연구 참여자의 선정

연구 참여자 선정은 현상학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연구될 상황을 경험하여야 하고 개인들이 현상을 대표할 수 있어야하므로 현상학적 연구에 따른 “기준(Criterion)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참여자는 거주기간이 10~18년차인 중복 제천의 D전문대학에 재학 및 졸업생 가운데, 연구자가 그들의 전문대학생활 경험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전문대학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도농지역 결혼이주여성 6명 즉, 일본 2명, 중국(연길) 2명, 몽골 2명을 연구의 질적 보증이 가능하도록 Miles & Huberman (1994)[34]이 제시한 「의도적 표본 추출 전략」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III-1].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호	연	자	결혼	한국	주거	이전	진학	현재	직업
칭	령	녀	동기	거주	형태	학력	동기	학력	
			본국						
A	34	1명	장녀의 책임감	14 연길	전세	대학 중퇴	일과 연관 당당한 삶	대학원 석사 수료	다문화 강사
B	35	3명	다르게 살고 싶음	11 몽골	월세	고졸	일자리 찾기 위함	전문 대재	다문화 강사
C	39	2명	늦은 나이 결혼	13 연길	자가	고졸	좋은 직장 위함	전문 대졸	다문화 강사
D	37	2명	중개업	10 몽골	자가	고졸	전문적인 일 원함	4년제 편 입	다문화 강사
E	48	3명	교회	18 일본	자가	고졸	전문적인 일 원함	4년제 편 입	다문화 강사
F	49	3명	지인소 개 교회	16 일본	자가	고졸	꿈이루기 위 함	4년제 편 입	다문화 강사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알파벳으로 연령은 처음 면담 때를 기준으로 기록하였다.)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D대학에서 그들에게 4년 동안 학과강의를 하며 학교의 여러 행사와 동아리모임에 참여 관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2011년 4월부터 전문대학의 결혼이주여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준비하여 왔으며, 연구는 2014년 2월 연구대상자를 선별하는 예비면담을 시작으로 동년 6월까지 진행하였다. 그 후에도 정보의 포화를 위해 현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2015년 4월까지 추가 면담과 관찰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은 각각 1회 2시간씩 2회 이루어졌고 보충면담은 필요에 따라 시간차를 두고 30분 정도로 2-4차례씩 진행하였다. 지속적인 관찰은 참여자들이 재학 또는 4년 학사학위취득을 위한 심화과정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가능하였으며, 학교생활 외의 관찰은 동아리모임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생각의 변화과정에 대

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질적 연구인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연구 참여자와의 인터뷰내용이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35], 연구 참여자가 곧 자료수집의 도구가 된다[36]. 따라서 이 연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면담내용 텍스트, 관찰노트, 관련 문서 등을 주요자료로 이용하였으며, 자료 중에는 중복 제척의 D전문대학 입학 안내 자료나 행사 안내자료 등의 공식적인 문서자료도 활용하였다. 또한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이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였고, 연구 참여자가 면담 전에 질문할 내용을 읽어보게 한 다음 직접 겪은 경험을 실질적으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도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 참여자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회사상담실, 커피전문점, 레스토랑 등에서 실시하였다. 현장 관찰은 연구자가 수업 이외의 별도 학교행사와 다사랑 모임활동 등에 동참하고, 그 활동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건과 내용을 탐색하여 관찰 노트에 기록하고 그들의 경험과정 맥락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다문화강사이며 전문대학 학습경험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 역시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해왔으며, ‘人性’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뒤늦게 새로운 학습을 하고 있는 ‘성인학습자’이므로 연구 참여자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중년여성인 연구자는 지난날 유아교육을 전공하였고 ‘평생교육학’과는 다른 또 하나의 직업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며 자신 스스로가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 연구자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상위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것이다. 진심(眞心)을 최상의 가치로 생각하며 자신을 성찰하기를 쉽 없이 하려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는 연구자의 이러한 사고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자료분석

수집한 자료는 Giorgi(1985)와 Moustakas(1994)가 제시한 과학적 현상학적 4단계과정[37-39]을 토대로 분석 활용하였다. 이의 과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II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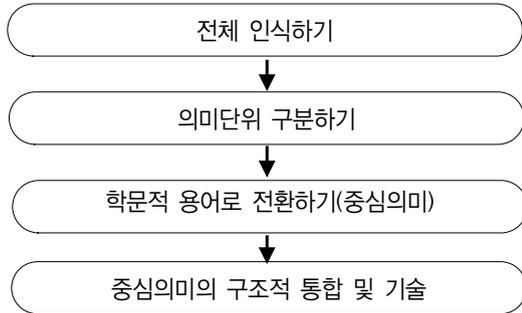


그림 III-2. Giorgi와 Moustakas의 과학적 현상학 4단계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구성요소 도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즉, 연구자는 6명의 연구대상자 면담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전체적 의미를 탐색하였고, 자료를 중심으로 의미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학문적 주제에 맞도록 각각의 의미단위로 구분한 후 의미단위의 조합 및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였다. 학문적용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식적 언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도출되어 변형된 중심의미의 구조적 통합 및 기술하였으며 중심적 의미는 진학과정 5가지, 학습경험 7가지, 학습경험 의미와 삶의 기대를 도출 한 후, 연구구조에 적합하도록 연구 참여자의 전문대학 진학과정과 학습경험 내용, 학습경험 의미와 삶의 기대관련 의미를 범주화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선택에 따라 현상기술의 객관성과 민감성의 향상을 위하여 현상에 중심을 두고 '내재적 대상'을 관찰하기 위해 '판단 중지 및 환원'의 과정을 수행했다. 첫째, 연구자는 '환원'을 수행하는 일인 '괄호치기(bracketing)'에서 출발하였으며 둘째, 수평화 작업(horizontalizing)을 통하여 '괄호치기'에서 얻어진 모든 개념들에게 동등한 중요성을 부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미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직적 기술을 통해 개념을 의미단위화하였다. 셋째, 상상적 변형(imaginative variation)과정으로 도출해낸 의미의 단위를 개념의 본질을 찾아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였다. 넷째, 구조적 기술과정(structure description)으로서 상상적 변형에 의해 도출된 중심의미를 다양한 개념들을 연구구조에 맞도록 기

술하여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본질이 나타나도록 하였다[38].

즉, 단계과정에서 도출된 것들을 일반적 내용으로 표현한 뒤 다시 원 자료로 돌아가서 구성요소 간에 상관관계를 파악 연구구조에 맞도록 기술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본질이 나타나게 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의 구조'에 대한 도출로부터 행동의 이유가 아닌 경험의 '의미'를 찾아내어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일관성 있게 기술하였다.

IV. 연구 결과

Giorgi와 Moustakas의 과학적 현상학 의미구조 탐색을 위한 4단계과정 제안에 따라 도출된 전문대학 진학과정 및 학습경험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표 IV-1]. 즉, 연구 참여자 6인을 대상으로 탐색되어진 전체의 의미요소 중에서 동일한 의미단위 84개를 도출한 후, 이들 의미단위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 구성요소를 34개로 구분, 그 후 최종 구성요소 12개를 통합 확정, 진학과정의 5가지 의미구조, 학습경험에 대한 7가지 의미구조, 삶의 기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표 IV-1. 전문대학 진학과정 및 학습경험구성요소

하위구성요소	구성 요소	
대학진학과 자신의 꿈 실현함	자신의 꿈 실현	진학과정
학력 향상이 필요함,	당당한 부모 상을	
자녀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고 싶음	찾고 자	
가족이 바로 서야 함	안정된	
경제적 자립이 필요함	가정생활추구	
안정적인 일 원함		
전공 관련 학위가 필요함	전문 직업 갖기	
사회에서 당당해지고 싶음		
학업을 마칠 수 있어야함	진로결정을 위한 수단	
취업할 수 있어야 함		
전문용어는 사전을 찾으며 학습함		전문대학 진학 후 학습경험
적극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함	자기주도적 학습인으로 성장	
남편보다 높은 학력 반대를 넘어섬		
등록금을 자비로 부담함		
자신이 성장하는 모습을 봄		
언어능력 증진위해 노력함	의사소통능력 증진	
서로 배려하게 됨		
바람직한 대화 방법으로 바꿈		
집안일을 함께 상의하게 됨	가족관계에서 자아상 확립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음		

가족의 인정에 보람을 느낌	
자신의 발전된 모습에 만족함	
부모역할을 할 수 있음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자신의 의견이 수용됨	
자녀교육관 정립함	
자신과 가족의 건강관리를 하게 됨	가족가치관
상대방 가치관을 이해하게 됨	형성과 건강
가족들의 지지 발견함	생활증진
가족, 교수님, 친구관계로 확대됨	인간관계증진
직장에서의 업무 능력증진	
상위학교진학 계속 공부하고 싶음	배움을 통한
자신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됨	평생학습 인간
주변사람의 지지를 발견함	
한국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한국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살의 기대

1.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과정 이야기

1.1 자신의 꿈 실현

연구 참여자 E씨, F씨는 일본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일본의 개인주의 성향과 달리 한국의 가족주의 문화와 온정적인 정서가 좋아서 교회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며느리와 가족은 다른 존재였으며 기대와 다른 이러한 현실로 인해 역 이주를 생각할 정도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한국생활 통합교육을 받고 난 후 그리고 자녀 출산 등으로 한국생활에 대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F씨 : 처음에 가족 분위기가 좋겠다. 저도 거기에 속 들어갈 수 있겠다는 바람은 착각이었어요...(중략) 있고 있었던 꿈이.. 대학에 꼭 가고 싶었고 선생님하고 싶었던 거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렇게 됐어요

E씨 : 교사로 들어가면 일어도 애들한테 가르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다문화센터에서 지원하는 통합교육 참여 이후 전문대학진학 동기를 결심하였고, 진학 정보를 탐색하던 중 주변의 D전문대학이 만학도, 외국인 대상 특별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본국에서 포기하였던 꿈이 반영되어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1.2 당당한 부모상(象)을 찾고자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고자 고심하던 중 학위와 자격증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한국사회는 학력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을 깨달아 많이 배울수록 더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음을 판단하게 되었다.

F씨 : 학력 때문에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자격증이 있어야 대우받으면서 일도 할 수 있고 ..

D씨 : 예전에는 그런 거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네에 친구 집에 우리엄마는 대학교 3학년 사회복지과 다닌다고 자랑 했더라고 요 우리엄마가 외국사람이라고 해서 기가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는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로부터 자유롭고 당당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진학이 중요함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차별의 대물림’을 주지 않는 방법이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결혼이주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대학진학은 자녀들에게도 당당한 부모가 되고 싶은 내재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안정된 가정 경제생활 추구

연구 참여자들은 도·농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었다. 이에 경제적인 궁핍을 느끼고 있었고, 자녀 출산 후에는 양육비 증가로 가계생활비가 부족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있었다.

D씨 :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이 우선이라 해도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했어요

A씨 : 먹고 살기위해서 .., 너무 다른 경제관념,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F씨 : 돈이 없으니 가족도 무너지더라,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 출산 후 양육 및 교육비가 증가하여 그들이 경제활동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부분적으로는 다문화강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입이 보탬은 되었지만, 불규칙한 수입으로 큰 보탬은 되질 않았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안정된 경제력이 우선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결혼이주 여성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클수록 대학 진학의 동기요인으로 강하게 작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4 전문 직업 갖기

한국의 농어촌 결혼이주여성들은 정규교육과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이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통합교육 후 자국의 언어를 활용한 다문화강사로 일자리를 찾는 사례도 종종 있지만 불규칙적인 출근과 수입이 적은 관계로 보다 규칙적인 일과 안정적인 수입을 원하고 있었다.

F씨 : 직장 아침부터 밤까지 하는 거 갖고 싶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학원 다녔고, 대학교에 갈까 했는데 안됐고 D대학에 가니까 일자리가 그렇게 해서 있고..

B씨 : 학교 가는 것은 예전부터 다니고 싶었어요 제가 센터에서 일하면서 거기도 사회복지잖아요. 거기도 있으면 자격증, 학력 있으면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다니고 싶었어요.

A씨 : 학습지도사들은 정규 대학 졸업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당당해지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안 해야죠 일하고 연관이 있는데 빛 안내고 학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돈을 버니까.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학위와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정된 직장에서 안정된 수입이 있는 직업을 갖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나름 다문화 언어강사, 상담통역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과 같은 직종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수입과 일터를 갖고자 학비관련 어려운 경제 살림 형편임에도 대학진학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5 진로결정을 위한 수단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결혼이전 자국에서 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중퇴의 학력을 지닌 상태이고, 한국남성과 결혼 후 주로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이에 가정경

계가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틈틈이 사회활동 참여를 통하여 얻은 수입을 절약하여 대학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씨 : 사회복지과는 나이가 많아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키우고, 공부도 어렵고, 일도 해야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선택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보육교사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할 수 있었고, 진짜 감사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방통대 갔으면 지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B씨 : 제가 대학교 가고 싶었는데 젊었을 때 못 갔어요. 다문화센터에서도 많이 공부하라고 한국말은 어려우니까 모국어로 대학교를 가면 유리할 것 같다고 그거 제가 좀 머리에 기억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수입향상과 이를 위한 수단으로, 나아가서는 전문직 직업진로 개척을 위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학하였고 학업생활에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

2.1 자기 주도적 학습 인으로 성장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는 학업성취를 위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전공과정을 선택하여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D전문대학의 S학과는 한 학년에 주간 2반, 야간 1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은 한 학년에 1반씩 2개 반이 야간으로 운영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의 전공심화과정 등록현황은 학급별로 1~2명씩 소속되어 있었다.

B씨 : 낮에 일하고 야간반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못했거든요. 어려운 것은 숙제 있잖아요. 발표도 하고, 조 짤 때는 맘 통하는 사람들끼리 할 때는 좀 어렵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자존심 많이 상했어요 ... 좀 어려웠어요.

B씨, D씨, E씨, F씨 : 언어소통은 문제가 없었어요.

전문용어 이해가 어려웠어요. 전문용어는 별도로 사전으로 공부를 하면서 했어요.

D씨 : 돈은 없었으니까 그런데 남편은 절대 제 대학교 등록금 내줄 사람이 아니니까 그랬어요, 등록금을 내가 다 마련해 놓고 겨울에 실습하고, 그런 식으로 ...

F씨 :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포기했었던 걸 이뤄내니까.. 2년에서 끝나니까 사회복지과 가자고 교사자격증 따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본국에서도 하지 못한 학습을..., 부모가 반대 했었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학위취득은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는 어려운 상황적 요소를 이기는 힘으로 작용하고, 이를 토대로 자기주도 학습 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용어 이해의 어려움을 사전을 찾으며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주간에서 야간으로 시간을 옮기며 등록금은 스스로 마련하며, 학업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의사소통 능력 증진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생활에 적응해 나가면서 의사소통능력이 증진되고 있음도 인식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의사소통능력 진작과 더불어 보다 많은 주변 이웃들과 소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특히, 남편과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자신이 무시당하는 행동을 감지하면서, 그 원인이 자신의 감정 표현 미숙임도 깨닫고,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의 불평등한 대우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신의 주장을 제기하고자 함에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하면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B씨 : 전에는 말을 안 하고 고분고분하니까 순환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알아들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입니다. 라고..

D씨 : 그때 당시는 제가 우리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는데 ..아줌마들이 그랬대요. 외국사람인데 왜 혼자 돌아다니게 하냐고 ..그런데 유목민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냐고(웃음) 남편이 많이 이해를 해주신 것 같아요.

F씨 : 엄마가 하는 말이니까 한국사람 틀리다고해도 엄마가 하는 말 다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얘기 하더라도... 말이 통하지 않아도 얼굴 보면 무슨 말인지 나타나 있는 거 ..표정. 그런 세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C씨, E씨, F씨 : 사회복지과니까 그런 거 배웠잖아요. 상담 심리 쪽 공부를 하다보니까 신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양육하는데도 도움이 됐어요. 전에는 많이 다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습득한 상담심리 및 가족 관련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가족이해와 소통 능력 증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진심, 배려, 존중,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소통능력을 갖춰야 할 것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2.3 가족관계에서의 자아 상 확립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대학 진학이전까지는 가족으로부터 소외감 즉, 가족 속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으나, 전문대학 진학 후 자신의 행동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향상되고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 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그로 인하여 처음에는 가족들이 전문대학 입학에 반대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적극 지원해 주고 가족구성원 가운데 핵심적인 구성원으로 자신을 세워주고 핵심가족 구성원으로 아내로 엄마로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F씨 : 처음에는 하는 대로 하자고 그런 건데. 지금은 하는 일이 있으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싫어도, 나중에는 좋게 되는 걸 목표로 ... 뭐든지 눈으로 보는 것 안 좋다고 생각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좋게 될 것 같

다는 목표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D씨 : 사회복지 시설에 가고부터는 월급도 올라가고 그때부터는 우리 마누라 일하고 있다 슬슬 자랑하고 그러더라고요(웃음), 동네 경로당에 가면 우리 며느리가 사회복지관에 다니고 있다고 자랑하고 어머니는 칭찬하는 쪽으로 ..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대학 진학 이후 자신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장 발전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남편에게 도움이 되었고,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가족 속에서 존재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2.4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초등학교 중학교에 진학하게 됨에 따라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 관련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다. 자녀의 또래와 교우문제, 학업성적, 언어문제, 진학문제 등에 관심과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러나 전문대학 등록 후 자녀 돕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자녀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되어 감을 느끼게 되었다.

B씨 : 유치원에서는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오히려 학교가면 일이 많았어요. 첫째가 학교가니까 준비물도 많고 부모님이 이것도 봐줘야하고 저것도 좀 해야 되고 또 일찍 끝나잖아요 이것은 중국하고도 다르거든요 8학년인데. 나는 놀고 있는데도 숙제도 못 봐주는데 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학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원비도 비싸고요..

C씨 : 저희들 옛날에 배운 것하고 여기 아이들 배우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방으로 보냈어요 지금은 내가 돈을 버니까 그 부담은 나의 소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 의식주에는 문제가 없어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조금씩 노력해서 한 걸음씩 나갈 수 있었어요

F씨 :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학교에서 부모교

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보니까 아이들한테 말해도 안 한다고 .. 그래서 제가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중이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도 교육도 되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들은 집안일에 대한 역할분담, 자녀의 숙제와 학습을 위해 보내는 학원에 대한 남편과의 의견 차이, 교육비 문제 등을 전문대학 졸업 후 자신이 해결하면서 갈등을 하나씩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전문대학 등록 후 학교의 부모교육활동에도 자주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긍정적인 자녀교육관이 형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자녀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2.5 가족가치관의 형성과 가족 건강생활증진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이주여성으로 농촌생활과 자녀 양육, 가족구성원과의 원만한 소통 등의 현실적인 문제 인식과 이의 극복 그리고 자신의 윤택한 가정생활을 위한 새 가정을 바로 세워 보겠다는 일념으로 가사 일과 노동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의 일환으로 참여자 E씨, F씨는 전문대학 등록 후 전공지식 습득을 통하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고 하였다.

E씨, F씨 : 자궁근종 수술 받고 고혈압도 약을 먹고 치료를 시작했어요 건강이 제일이라고 다시 깊이 생각했어요 건강관리 잘하고 보육교사로서 실력향상위해 노력하고 가정에서는 엄마로서 아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D씨 : 다음 날 당직 있다고 하면 많이 끊어놓고 나가면 남편이 나중에 애들한테 먹이던지... 돌아보니 4, 5년 동안 애들한테 못 했던 거 이제라도 잘 해야겠다 생각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는 너무 바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 들었구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동안 내 힘뿐만 아니라 내 아이들과 남편의 힘도 있었구나. 그런 것도 보게 된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는 전문대학 생활과정을 경험하면서 습득한 지식의 결과를 통하여 가족구성원의 소중함을 깨

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의 가정생활과정이 자신의 힘만이 아닌 남편과 가족들의 지원이 있었음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가족가치관의 형성과 이에 따른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구성원의 건강생활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2.6 타인과의 인간관계 증진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대학 생활을 경험하면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생상호간의 신뢰형성과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교수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며 대학생이라는 자부심과 소속감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자신에 대한 재발견과 함께 나름대로 학급동료, 교수, 동문회 등과의 새로운 의미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대학 동아리 “다 사랑회” 모임활동에 참여하면서 재학생 및 졸업생 동문들과 함께 새로운 만남의 장에 참여하면서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현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만남과 인간관계를 증진시켜 나갔다.

A, B, C, D, E, F씨 :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 교수님들의 배려가 있었고, 교수와의 관계가 좋았어요.

C씨 : 학교에서 교수님의 배려로 매점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학교생활을 즐겁게 지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알게 되고,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매점에서 한동안 활동을 하고 재미있었어요.

B씨 : 집에 갈 때는 같은 방향의 동료와 함께 카풀을 하며 동료들과 우호적으로 잘 지냈어요. 한국인 친구들도 사귀며 서로 간에 친밀감을 갖게 되고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

F씨 : 처음 만남이 있었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다문화센터 사람들이나, 저의 성공을 위해 힘을 주셨던 고마운 사람들, 한국에 와서 만났던 것 같아요. 보육교사가 될 기회였으며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생활 속에서도 유익했고 한국생활적응에 도움을 주었어요.

이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대학 생활과정을 경

험하면서 대학 구성원인 동료 학생과 교수, 졸업생 등과의 새로운 만남과 인간관계 형성이 확대되어져 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배움을 통해 즐거움도 깨닫고, 서로 만나면서 자신의 문제도 해결해 나가면서 인간관계 기술과 능력도 신장되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의 지지를 발견하며 저하된 자존감 회복에 전문대학 생활이 토양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다.

2.7 배움을 통한 평생학습인간

연구 참여자들의 전문대학 학습경험은 전문지식의 확장으로 구직과 직장생활 경험의 확대로 그리고 직장생활의 경험은 학습의 자극으로 이어지면서 일과 학습의 병행을 통한 평생 학습 인으로 거듭 나게 되었다. 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전문대학 학습경험을 통하여 자격증과 함께 안정적인 직장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익히게 되었으며 심화된 학문 세계를 접하며 지속적인 평생학습에 참여하고자 하였다.

E씨, F씨 :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통신편입 학교 일어일본학과에 편입 4학년에 재학 중이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연장하여 맡기고 있어요.

E씨 : 작년에는 주간 반에서 근무하였는데 진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장님 배려로 야간반으로 시간 연장 반에서 근무하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들과의 언어문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일본인이라는 것을 설명해줘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요. 업무적인 어려움은 일지 쓰고, 관찰일지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모르는 것은 경력교사 자료 복사해 가지고 가서 혼자서 공부했어요.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대학 입학 목적 성취를 위하여 스스로 학습여건을 만들어 가며 굳은 의지로 실천해나가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 D씨는 전문대학 졸업 직후 지적 장애인 시설에서 2년간 근무를 하였다. 그는 직장생활 적응에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가장 어려웠던 업무는 일지 쓰기와 자녀 양육문제였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전문대학 학습경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었고, 그는 지속적인 평생학습활동 참여를 결심하였다.

E씨, F씨 : 4년제 졸업하면 대학원까지 졸업할 예정이예요, 공부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변해가는 것이 좋았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고 제가 많이 변화되었어요. 5년 후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꿈이고, 사회복지사 1급에도 도전하고 싶어요.

연구 참여자 일부는 전문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일정기간 직장생활 적응을 하면서부터는 또 다시 상위 학교에 진학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전문대학 학습경험을 통하여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돕는 배움의 가치를 자아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가정 세우기, 가정에서의 자아상 확립 및 자녀교육, 가족건강 증진, 대인관계 능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원하는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하여 평생 동안 배우고 익혀나가는 학습인간을 기대하게 되었다.

3. 학습경험 의미와 삶의 기대

3.1 한국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연구 참여자들은 학습과정에서 배움을 삶에 적용하며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습여건을 만들며 굳은 의지로 실천해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학습과 삶의 경험을 재해석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씨: 처음 입국했을 때의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현재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좋아짐을 느꼈어요. 그동안 힘들었지만 곳곳하게 참고 견뎌온 내 자신에게 “잘했어, 넌 너무 장해.”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 하루하루 충실히 살다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것이라 믿어요.

B씨: 제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남편하고 다들 때마다 기가 막히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한국 생활에 대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는데.. 연구를 통해 집착하기 보다는 지혜로운 여성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도 중요한 것을 재차 느끼게 되었어요.

C씨: 지금은 내가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뿌듯하고 이로 인해 나도 많은 변화를 가졌다는 것을 느꼈고, 사회복지과 다니면서 상담 심리쪽 공부를 하다보니까 신랑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양육하는데도 도움이 됐어요. 전에는 많이 다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도 배움으로 나를 더욱 성장 시킬거예요.

D씨 : 만약에 나한테 어려움이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면 돈을 막 쓰고 (중략)..., 돈을 아껴 쓰게 되고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F씨: 일본에 가고 싶었는데 어려움 극복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뿌듯한 것 같아요. 나도 많은 변화를 가졌다는 것을 느껴요, 조금씩이라도 어려움을 극복하기위해서 그렇게 되어갔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경험이 더 해질수록 어려움 극복, 학력, 자격증취득보다도 상위가치인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개인지향의 삶의 가치가 사회지향의 가치로 변화 되었다. 즉,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 ‘주체적인 삶’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하고 주체적인 삶과 배움을 통해 ‘한국인으로 인간답게 사는 삶’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과정 및 학습경험의 구조적 기술

학습경험의 구성요소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과정 이야기 5개의 구성요소와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 7개의 하위구성 요소를 정리하여 학습경험의 구조를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Giorgi의 일반적 경험으로 표현하여 자료의 구성요소 간에 상관 관계있는 구조로 풀어내는 단계로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학습경험의 본질을 일반적 경험으로 다시 돌아가 서술하였다. 즉 Husserl의 실재에 대한 추구, ‘사물들 그 자체로 돌아가라’는 것에서 이유를 찾는 부분으로 경험을 다시 일반화하여 객관화시켜 보는 부분이다. 그 후 연구자는 이것을 맥락 속의 현상으로 이해하기 위해 구조화 시켰

고, 도식화 모델을 통하여[그림 IV-1]로 제시하였다.

4.1 전문대학 진학과정

연구 참여자인 결혼이주여성은 초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전에는 한국어 교육 및 사회 적응교육 참여가 전무하였다. 따라서 한국어를 가정에서 독학으로, 전통문화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배울 수 있었다. 한편 이들은 의사소통 부족,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 차이에 따른 가족과의 갈등 등으로 가정 내에서도 존재감이 없는 소외되었으며, 심지어는 한국생활 포기로 인한 사회문제도 야기된 적이 있다.

정부가 2008년 ‘다문화지원법 제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은 정부 지원의 통합프로그램인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이해 교육에 참여하면서 어느 정도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심에는 남편과 자녀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한국어능력 평가 통과 후 사회참여 일자리 제공차원에서 지원되는 다문화 강사로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그들의 학력이 고졸 수준이었기에 학위와 자격증이 없는 다문화강사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불규칙적인 일과 적은 수입은 그들이 농촌에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데는 부족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안정적인 수입과 규칙적인 직업 활동을 위한 자격증과 학위 취득이 대학진학의 주요 동기였다.

한편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대학진학은 대학진학 정보 탐색 중 농촌지역의 전문대학이 고령자 만학도 및 외국인 대상의 입학 특별전형 선발제도 시행으로 접근의 용이성을 꼽을 수 있었고, 일부 특성화 학과는 주간과 야간반을 운영하여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하고,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이 용이한 학과가 개설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대학 접근의 용이성과 취업진로에 대한 적정성이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연구 참여자들이 대학 입학할 가능하게 해준 주요 배경이었다.

4.2 전문대학 진학이후의 학습경험 의미

연구 참여자들의 전문대학 진학 이후의 학습경험 활동에서도 극복해야 할 요인들이 있었다. 언어능력 한계에 따른 과제 준비와 발표 및 학과 시험, 자녀 돌봄, 등

록금 마련, 가족의 반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학업성취 이후에 대한 다양하고 강한 기대감은 이러한 장애요인 극복에 큰 힘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전문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다양한 행사와 동아리 활동 참여, 동료 및 선후배 및 교수와의 인간관계 및 사회적 관계 확장은 또 하나의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해주었으며, 전공학과의 전문지식과 기술 습득은 가정생활에 있어서의 가족관계 증진 및 자녀양육에의 자아 위상과 자신감, 가족의 학교생활지 및 지원을 가져다주었고, 진로결정 및 직업준비에도 큰 희망을 안겨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였기에 시간 부족으로 학업활동에 열중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여 2년 동안의 학업을 마치고 ‘전문학사’ 졸업장과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는 성취의 행복 및 자부심과 가정 및 사회에서의 소속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결혼이주 초기의 한국생활 적응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비 존재감, 자아 상실감 외의 다양한 과거의 아픔들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대학 학습경험과 함께 가정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과정에서 조금씩 안정된 모습을 찾게 되었으며, 당당하게 생활해 나가는 여유를 가지게 된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있었다. 이들의 만족감과 성취감은 용기로 바뀌어 새로운 도전 즉, 가정 경제형편 향상에 대한 가능성,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학업 성취과정에서 가족구성원의 지지 등을 발견하는 등 자신과 가족 간의 관계개선 및 신뢰도 회복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4년제 전공 심화과정에 입학 또는 방송통신대학 3학년에서 편입, 대학원 등에 진학 및 진학계획’을 세우는 등 평생학습인간으로 보다 높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들은 전문대학 학습경험을 통해 학습의미가 증진되고 순환적 구조가 형성되면서 그들의 삶 살이와 융화되어 확장되어 나가고 있었다.

4.3 학습경험 의미와 삶의 기대 의미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입학 후의 학습경험은 ‘자신’을 세우는 과정이며 경험과 의미가 증진되는 과정이었다. 지난 삶의 경험과 학습이후의 기대가 학습장ைய

인 즉, 가족의 반대, 일과 병행으로 인한 학습시간 부족, 언어능력부족으로 인한 전문용어이해부족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학습한 내용을 삶에 적용하며 일과 학습 그리고 삶이 하나가 되어 성장하고 있었다. 궁극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은 자신의 변화과정인 동시에, 이후에도 상위학교 진학, 자녀들이 성장함으로써 자녀의 진로문제, 안정된 직장생활, 노후생활준비 등 행복한 가정생활과 상위의 가치 있는 '삶', 즉 베풀면서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의 이러한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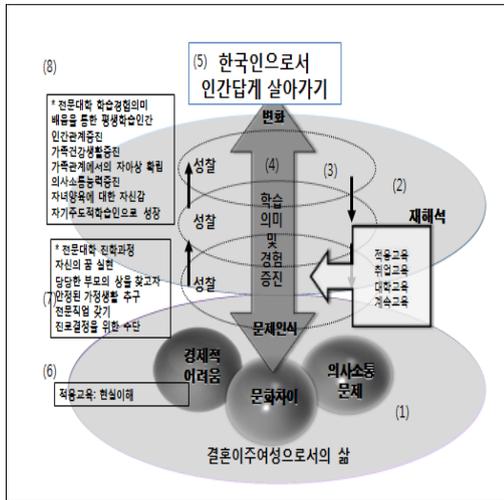


그림 IV-1. 결혼이주여성 학습경험의 의미 증진과정 '한국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이 왜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들의 전문대학 학교생활을 통한 학습경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학습경험을 통한 그들의 삶에 대한 기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구조화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

를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가 기술한 언어를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이것을 연구자가 학문적 용어로 전환시켜 의미의 구조를 파악하고 일반적 내용으로 표현하였으며, 이후 원 자료로 돌아가 상관관계를 구조화로 풀어내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주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의미를 요약하면,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과정은 자신의 꿈 실현, 당당한 부모상 찾기, 안정된 가정 경제추구, 전문 직업 갖기, 진로결정의 수단의 의미로 탐색되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 후 학습경험의 의미는 자기주도적학습인으로 성장, 의사소통 능력증진, 가족관계에서의 자아상 확립,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감, 가족건강생활 증진, 인간관계증진, 배움을 통한 평생학습 인간이 됨으로 탐색되었다.

마지막으로, 결혼이주여성의 학습경험이 미래의 삶과 관계 짓는 의미 구조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해 나가는 주체적 삶, 배움의 가치추구를 통한 한국인으로서의 당당함과 인간답게 사는 삶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1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과정의 의미

이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과정의 의미는 진로탐색과정에서 전문대학을 결정한 이유에 있다. 이들이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수입향상과 이를 위한 수단으로, 나아가서는 전문직 직업진로 개척을 위함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직업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장학제도가 마련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교육 접근성이 용이하다[34]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한국이란 낯선 환경에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며 학업을 마쳐야하기 때문이며, 결혼이주여성의 소득수준이 어려운 경제적 여건임을 고려할 때 접근성에 대한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진학에 대한 욕구는 지난 삶이 어려울수록, 가족들의 반대가 심할수록 강하게 나타났다. 이들에게

다양한 생애사건의 경험은 강한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며[29] 문화충격이 클수록 취업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학습 참여 동기는 기술을 익혀서 취업과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취업에 관련한 욕구는 성장 발전에 대한 요구로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요구이며 강한 학습동기를 제공한다[29]. 이는 학습의욕을 일으키는 내적인 힘으로서 학업성취를 높게 나타나게 하며, 도전적이고 어려운 과제를 성취하게 한다는[28] 연구결과와 같이 이들은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학하였고 학업생활에도 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다양한 학습동기 유발과 학업성취 요구가 강해지면서 도전적이었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전문대학을 찾아 입학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36]는 연구결과에서도 이들의 진학에 대한 강한 욕구를 엿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초기적응을 위한 학습활동 참여, 다음은 한국사회생활에 익숙해진 단계에서는 당당한 부모가 되기 위하여, 그 다음은 경제적 빈곤해소와 자녀교육을 위해 정규 고등교육기관에의 진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학습경험연구와의 차이점으로 이 연구는 고등직업교육기관인 전문대학에 진학한 진학과정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라는 것이며 이후 저학력결혼이주여성의 교육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볼 때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2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 후 학습경험 의미

이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진학 후 학습경험의 의미는 이들에게 전문대학은 소속감 뿐 만 아니라 한국생활에 필요한 언어, 경제, 문화에 관련한 지식 및 기술과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장소이며 학습경험은 '자신이 세워지는 과정'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전문대학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행사와 동아리 활동 참여, 동료 및 선배 및 교수와의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나갔다. 일과 학습을 병행하였기에 시간 부족으로 학업활동에 열중하지는 못하였지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최선을 다

하여 2년 동안의 학업을 마치고 '전문학사' 졸업장과 '자격증'을 손에 쥐었을 때는 성취의 행복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의 성취감은 이주초기의 한국생활 적응에서 겪었던 다양한 아픔들까지도 치유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력사회에서 한국 성인학습자들이 학력으로 인한 상처가 고졸자의 학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나 찾아가기'에서 '열등감이 자신감으로 전환됨',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됨'등의 자기치유의 과정을 구성요소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40]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이들의 학습경험은 학습의지에 따라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물론 인간의 내적, 외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고[3] 일상생활에서도 학습을 생활화하고, 자기성장과 발전 유도, 삶의 활력을 주며[30], 자아존중감 향상 [31]과 자기 효능감 제고[32] 등에 효과가 있다[33]는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대학 학습경험을 토대로 하여 이후 상위학교에 진학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학습경험을 '자신을 세우는 과정'으로서의 의미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학교생활을 지켜보던 가족들의 태도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자녀양육 및 집안일 분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자녀들도 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 또한 전공 관련 학습된 지식을 실천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의 교육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문제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문제해결에도 영향을 미치며, 한국사회의 정착과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3]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활동은 자신의 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취업활동은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비용 해결에 큰 도움을 주며[26], 사회구성원과의 접촉 증가로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적 지위향상은 물론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27][28]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전공 관련 실무뿐 아니라 전공 관련 지식을 실제 삶에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변화는 물론이고 가족관계 개선과 의사소통을 증진하게 되었고 사회적 지지기반이 형성되었다. 이를 기초로 가족 관계 및 소통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3 학습경험 의미와 삶의 기대관련 의미

이 연구에서 결혼이주여성의 학습경험이 미래의 삶과 관계 짓는 의미는 ‘한국인으로서 인간답게 사는 삶’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이주여성으로서 안정된 삶과 주체적 삶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배움으로 상위 가치를 추구하며 한국인으로서 차별받지 않는 당당한 삶, 인간답게 사는 삶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주체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외국인으로 분리되지 않고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한다는[41]연구와 교육을 통해 이들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의 기회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 사회발전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33]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사회통합과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 [34]는 연구에서의 주장과 같이 결혼이주여성 대상의 단기간의 직업훈련은 물론 장기적인 고등직업교육훈련을 통한 맞춤형 취업교육훈련 지원과 전문대학 입학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 이들이 학력사회인 한국에서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을 진학한 이유, 그리고 학습경험과 학습이후의 기대하는 삶의 의미, 졸업이후의 상위학교 진학, 직장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속교육 요구의 의미가 도출되었다. 이 연구는 전문대학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학습활동을 위하여 전문대학

및 대학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실제적인 요구는 동질의 가족 및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주체적인 삶을 위한 경제적 자립과 교육활동 지원이다. 따라서 단기성, 다발성 행사를 지양하고 실제적인 쓰임새 있는 직업교육훈련, 고등교육, 계속교육 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학습비, 정보접근 및 이용, 자녀양육, 교통비 등의 지원과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전문대학을 비롯한 대학은 다문화가정 주민의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지원의 중심 기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과 자녀의 입학기회 확대, 직업전문지식과 기술교육, 취업 후 보수교육 등 맞춤형교육을 수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을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 관계 유지, 접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문화 간의 이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상호호혜적인 다문화교육이 정규학교교육과정에서 실시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정책 입안자는 노력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가 다문화 사회이다. 문화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문화를 나눌 줄 아는 인간육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서로 다른 문화를 차별하지 않고,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사회가 가능하다.

넷째, 결혼이주여성은 자신의 인적자본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언어능력의 향상과 사회문화이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소통능력 및 관계향상,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잠재 능력 개발 및 전문 지식과 기술을 익혀 경제적 자립과 주체적인 삶살이가 가능하도록 배움의 영속화를 통한 의식변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라 제시하고자하는 사회복지적 실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학습경험은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과 계속교육에 대한 계획을 갖게 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삶의 가치

와 질의 향상을 위하여 개인의 학습요구에 따라 학습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은 전문대학 학습경험을 통해 학력향상 뿐 아니라 취업에 필요한 새로운 인적환경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다. 사회적 지지기반이 필요한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상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결혼이주여성은 학습한 것을 현실의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들은 학습한 전공지식을 가족관계 및 인간관계증진과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에 적극 활용하였다. 이 점은 전공과목의 선택 및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실천적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학력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학력향상과 계속 학습 기회가 확대되도록 사회·정책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차원의 교육 제도 등 공적·제도적 뒷받침의 정책과 그 실행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전문대학 졸업 후 수용적인 취업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장의 다문화에 대한 수용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습경험에 관련된 연구이다. 대학 및 타 전공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학습경험과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박진영, “이주여성들의 문화적응 어려움과 교육참여경험,” 평생교육학연구, 제15권, 제2호, pp.77-104, 2009.
- [2] 심인선, “결혼이주여성의 성인교육 경험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인교육연구, 제10권, 제4호, pp.77-97, 2007.
- [3] 박신영,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과정에서의 학습경험연구: 근거이론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4] 지윤숙,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동아시아 비교와 전망, 제11권, 제1호, pp.7-54, 2012.
- [5] 최정혜, “다문화가족 연구 동향분석: 2005-2010년 발간된 국내논문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제22권, pp.79-97, 2010.
- [6] 원진숙, 김정원, 이인재, 남호엽, 박상철, 김광수, 류재만,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교육,” 서울 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연구 총서1, 2010.
- [7] 정대용, 기영화, “여성 결혼이민자의 문해 교육경험이 생활적응 과정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연구, 제6권, 제4호, pp.137-157, 2010.
- [8] 설동훈, 이해경, 조성남, *결혼 이민자 가족 실태 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06.
- [9] 양순미, “농촌가족의 변화, 농촌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중국,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 부부 중심,” 농촌사회, 제16권, 제2호, pp.151-179, 2006.
- [10] 양인숙, 민무숙,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제·인문사회 연구원 협동연구총서,” 연구보고서, 제3권, 제3호, 2010.
- [11] 공은숙, “다문화 가족의 고부 갈등에 대한 사례 연구: 한국인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연구, 제18권, pp.123-134, 2009.
- [12] 구차순,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 [13] 서광석,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14] 은숙 자엘필더, “국제결혼의 이해와 건강한 다문화적응,” 아시아 아메리카 연구소, 제11권, 제2호, pp.132-163, 2011.
- [15] 고혜원, 김상호,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지원방안: 언어문화 자원 활용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16] 황연순,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문화적응을 위*

- 한 평생학습 사례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17] 김수연,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 분석과 정부지원정책 방안 :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18] 장서영, 이로미, 장인자, "여성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 분석," *The Women's Studies*, Vol.78, No.1, pp.77-117, 2010.
- [19] 최경희, *국내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사회적 지지, 사회활동참여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20] 박능후, 선남이, "한국의 다문화 의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취업이 한국사회 적응에 미치는 영향," *민족연구*, 제41권, pp.120-144, 2010.
- [21] 김진영, "방송통신고등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한 협력제고방안," *글로벌문화콘텐츠*, 제8권, pp.269-306, 2012.
- [22] 김이선, *다문화가족 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양상과 정책 대응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다문화가족포럼자료, 2013.
- [23] 고혜원,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 방안: 어문화 자원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자료, 2010.
- [24] 김지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와 교육," *철학연구*, 제106권, pp.29-52, 2008.
- [25] 한상길, *평생교육론*, 공동체, 2009.
- [26]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2010), *전문대학현황*, <http://www.kcce.or.kr/college/>
- [27] 권춘우,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을 위한 고등교육 기관인가?* 토론자료, 전문대, 2012.
- [28] 이현림, 김지혜, *성인학습 및 상담*, 학지사, 2003.
- [29] 기영화, "성인교육의 일상학습 개조" *Andra 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3, No.1, pp.34-61, 2003.
- [30] 김민정,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역량과 적응에 대한 고찰*, 한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31] 조희선, 양다진, 김세리, 이남희,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활동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에 관한 연구. 취업의지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1호, pp.123-147, 2010.
- [32] 류보현, *결혼이민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 자기효능감, 진로준비 행동,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여성인적자원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33] 송인영, 김영화,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교육경험 및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적응의 관계," *평생교육연구*, 제17권, 제4호, pp.147-169, 2011.
- [34] M. B. Mile and A. M. Huberman,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2nd ed), Thousand Oaks, CA: Sage, 1994.
- [35] C. Moustaka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1994.
- [36] S. B. Merriam, *Qualitative research and case study application in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1998.
- [37] A. Giorgi (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 [38] S. B. Merriam,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9.
- [39] 신경림,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노승옥, 노영희, 양진향, 조명옥,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 [40] 엄미란, *산업대학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 의미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41] 유진희,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저 자 소 개

백 은 숙(Eun-Sook Baek)

정회원



- 1994년 2월 : 한국방송대학교 유아교육학과(학사)
- 2009년 2월 :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석사)
- 2015년 8월 : 단국대학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1985년 10월 ~ 1994년 11월 : 초등병설유치원교사
- 2007년 9월 ~ 2010년 11월 : 해나무어린이집 원장
- 2011년 3월 ~ 2014년 2월 :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전임교수
- 2013년 9월 ~ 2017년 현재 : 대원대학교 겸임교수
- 2013년 12월 ~ 2017년 현재 : 비전인성개발연구소장 <관심분야> : 직업진로교육,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교사교육, 부모교육 등

한 상 길(Sang-Kil Han)

정회원



- 1980년 2월 : 단국대학교 음악교육과(학사)
- 1984년 4월 : 미국 피츠버그대학교(교육학석사)
- 1990년 2월 : 세종대학교(교육학박사)

- 1988년 3월 : 우석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
- 2007년 9월 : Macquarie University-Sydney, Australia 연구교수
- 1997년 9월 :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교육과 교수
- 1999년 1월 ~ 2001년 2월 : 한국성인교육학회장
- 2004년 ~ 2006년, 2006년 ~ 2008년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 <관심분야> : 대학개방론, 지역사회교육, 성인평생교육, 중년여성교육, 다문화교육, 교육사회학 등